



空士總同窓會報

發行人：姜 敏 秀

編輯人：李 宰 律

(住所)：서울特別市 銅雀區 大方洞 358-1番地 ☎ 156-808, (電話)：02-823-1091, 810-6792, (FAX)：02-823-1092, E-Mail：airfa04@hanmir.com

9次年度 會長 就任



尊敬하는 先·後輩 同門 여러분!

今番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의 9次年度 迎送을 9期士官 同門들이 맡게 되고, 不足함이 많은 저에게 總同窓會의 會長職을 맡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榮光으로 생각하는 한편 總同窓會를 더욱 發展시켜야 할 莫重한 使命을 생각할 때 무거운 責任을 痛感하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同窓會의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逆境과 難關 속에서도 同窓會의 再建과 發展을 위해 積極 獻身해 오신 先輩동문님들과 歷代會長님들의 그 동안의 勞苦에 대하여 심실한 慰勞와 敬意를 드리며 아울러 積極的인 參與와 協助를 아끼지 않은 後輩

同門 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우리 母校인 空軍士官學校가 開校한 이래 벌써 半世紀 넘는 歷史를 간직하게 되었으며, 母校를 卒業한 우리 同門들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祖國과 하늘에 바친다"는 崇高한 星武人의 精神을 바탕으로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하고, 領空守護의 使命을 완벽하게 遂行하는데 身命을 바쳐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랑스러운 現役 同門 후배들이 21世紀 未來安保 環境에 適合한 先進國型 空軍力 建設과 航空宇宙軍으로의 變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하여 心血을 경주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總同窓會員들은 現役 後輩들이 空軍發展의 새로운 輝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積極的인 體援과 支援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總同窓會의 9次年度 迎送을 맡게 된 저와 9期生 同門 一同은 앞으로 1年 동안 名譽롭고 자랑스러운 星武人의 自負心을 바탕으로 空軍과 母校의 發展에 積極 寄與하고, 總同窓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더욱 敦睦하게 다져나가는데 最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圓滿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先·後輩 同門 여러분들의 積極적인 支援과 協

助 그리고 參與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年間 總同窓會를 調期的으로 發展시키고 또한 內質을 다져온 柳常新 會長님을 비롯하여 8期士官同門 여러분의 獻身的인 勞苦에 대하여 깊은 敬意와 謝辭를 보냅니다.

끝으로 會員 여러분의 健康하심과 家庭의 平安, 그리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亨通하시기를 祈願드리며 직접 찾아뵙고 人事 드리는 것이 道理인 줄 아오나 우선 紙面을 통하여 就任人事를 드립니다.

2001年 7月 1日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 會長 姜 敏 秀

차 례

총동창회 소식(2면~5면)

- 정기총회, 이사회(2면)
- 3사체전 격려행사(3면)
- 공지 및 협조사항(3면)
- 회원동정(4면)
- 회 칙(5면)

모교·모교 단신(6면)

회원 투고란(7면~10면)

- 첫출격(7면)
- 새 시대의 효문화(8면)
- 나의 꿈, 빨간 마후라(8면)
- 빨간 마후라의 혼(9면)
- 銀河水에 一葉片舟를 띄우고(10면)

찬조금 현황(10면)

평생회비 납부현황(11면)

總同窓會 任員(9次年度)

- 會 長：姜敏秀
 副 會 長：金相泰, 韓光熙
 理 事：高仁珪, 權赫達, 金光淳, 金明珠, 朴鍾權, 白奉鍾, 徐哲洙, 愼都龍, 李康洪, 李煥洛, 李俊昊, 林柄善, 崔一永
 監 事：李基鳳, 鄭恩鎬
 事務總長：李宰律

하늘의 꿈

공군사관학교여 영원하라!

朴 雄 鎮 (공사 4기)

시인·문학평론가

여기 星武臺의 요람에
 우람한 함성으로
 가슴에 불 지피면
 이 나라 저래의 역사가
 하늘 빛 소리로
 가득 채워 주리라
 깃을 품은 젊음이여
 별들의 꿈을 안고
 솔개 바람을 따라
 높이 높이 솟아올라라
 하여, 하늘꽃이 피어나는
 하늘 문이 열리면
 불새가 되어 날아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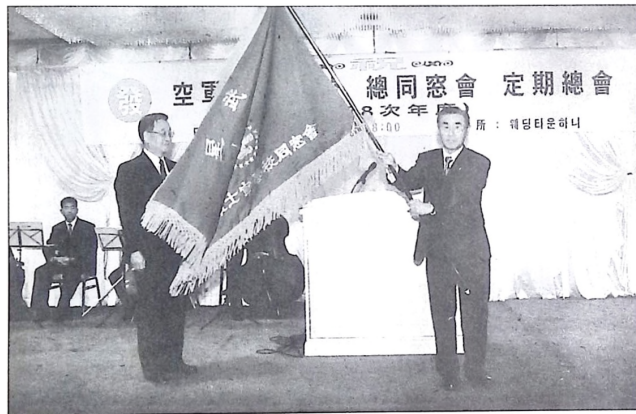
空士總同窓會消息

定期總會 開催(2001年度)

회칙 제4장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소집된 定期總會(8次年度)가 지난 6월 15일 18시 용산 웨딩타운 하니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는 會務 및 결산보고에 이어 9차년도 會長, 副會長 및 監事의 선임이 있었다. 9차년도 事業計劃과 所要 豫算에 대한 審議는 理事會에 委任되었으며 이어 8차년도 임원의 노고에 대한 致辭(1期 尹子重)와 9차년도 任員에 대하여 기대를 거는 會員들 간의 懇談會와 晚餐으로 화기애애한 雰囲気 속에서 총 회를 마쳤다.

결산내용에 대한 基金 引繼·引受 內容

內 容	金 額	備 考
1 總同窓會 基金	240,000,000원	주탁은행에 예치
2 運營費 引受	570,551원	8次年度 殘額
합 계	240,570,551원	



理事會(9次年度) 開催

회칙 제5장 제17조에 의거 9차년도 이사회가 7월 24일 18:30에 용산에 있는 웨딩타운 하니에서 각 기생 이사회가 모인 가운데 개최선언, 국민 의례에 이어 회장인사 및 현 보라

매 윤자중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9차년도 사업계획, 운영자금 조성 계획 및 航空宇宙 戰略研究所 設立 推進에 대한 支援案을 심의 의결하였다.

● 審議案件

1. 9次年度 事業計劃(案)

- 定期總會(1회)
- 理事會(1회)
- 會報發刊(4회)
- 總同窓會 賞(50기 졸업시)
- 배지 제작(1,000개)
- 3사체전 支援(대표선수 격려행사)
- 기지방문(2개 기지)
- 期生 懇談會
- 弔問(회원 별세시 弔花 5만원 상당)
- 運營費

2. 基金 造成 計劃(案)

內 容	收 入	備 考
1 期別 分摺金	15,400,000원	9次年度
2 贊助 · 一般 贊助 · 9期士官 贊助	3,000,000원 30,000,000원	計劃目的 全9期士官 計劃目標
3 移越 運營金	570,551원	8次年度
4 廣 告	3,000,000원	計 劃
計	51,970,551원	

3. 航空宇宙 戰略研究所 設立 支援(案)

- 總동창회에서 支援 議決



● 理 事

(1) 9차년도 이사('01. 7. 1. ~ '02. 6. 30.)

기수	회 장	부 회 장	총 무	기수	회 장	부 회 장	총 무
1	김영환	최규순	16	박성국		김종환	
2	최영선	명의창, 변선기	17	이향호	차육관	유연준	
3	홍시연	김종훈	소명욱	18	정원태	최석상	
4	김환중	안우일	김석용	19	김명립	윤정채	
5	최홍선	김명호	이병직	20	김성두	허원욱	
6	조영철	김영수	21	마순복			
7	곽영달	김영곤	22	김수준			
8	김상득	김도식	백상희	23	문차영	우무진	장창열
9	김민수	함종우	이재돈	24	한성주	조현규	유상양
10	김병태	홍동식	홍동식	25	한영천	김대회	정성용
11	김인규	정 훈	26	변종돈	이상길	이요섭	
12	김영식	김태규, 이명환, 전태우	김영웅	27	이광재	고병홍	김 인
13	문기철	조건환	지창수	28	윤 우	김주연	김영철
14	이억수	정성규	김세영	29	이천호		박흥민
15	박오삼	엄익준					

(2) 임원회비(7, 8차) 및 분담금(9차) 납부 현황('01. 9. 21. 기준)

期數	7次年度 ('99. 7. 1. ~ '00. 6. 30.)			8次年度 ('00. 7. 1. ~ '01. 6. 30.)			9次年度 ('01. 7. 1. ~ '02. 6. 30.)		
	計 劃	納 付	未 納	計 劃	納 付	未 納	計 劃	納 付	未 納
1	40	40	-	40	40	-			
2	40	40	-	40	40	-	40		
3	40	40	-	40	40	-	40		
4	40	40	-	40	40	-	40		
5	40	40	-	40	40	-	40	40	
6	40	40	-	40	40	-	40		
7	60	60	-	40	40	-	40	40	
8	60	60	-	60	60	-	40	40	
9	60	60	-	60	60	-	60	60	
10	60	60	-	60	60	-	60	60	
11	60	60	-	60	60	-	60	60	
12	60	60	-	60	60	-	60	60	
13	60	60	-	60	60	-	60		
14	60	60	-	60	60	-	60	60	
15	60	60	-	60	60	-	60	60	
16	60	60	-	60	60	-	60		
17	60	50	10	60	0	60	60	130	7. 8차 포함
18	60	60	-	60	20	40	60	100	8차 포함
19	60	60	-	60	60	-	60		
20	60	0	60	60	0	60	60	60	
21	60	0	60	60	0	60	60		
22	60	0	60	60	0	60	60	60	
23	60	0	60	60	0	60	60		
24	60	0	60	60	0	60	60		
25	60	0	60	60	0	60	60		
26	60	0	60	60	0	60	60		
27				60	60	-	60		
28				60	0	60	60		
29							60		
計	1,140	1,010	430	1,540	960	580	1,540	830	

<2면에서 이음>

總同窓會 任員 空本 禮訪

신임 總同窓會 姜敏秀 會長과 任員 一行은 지난 7월 20일 오전 就任 人事次 空軍本部 李億秀 參謀總長을 禮訪하여 참모들과 더불어 總同窓會 發展과 活性化에 關해 意見 交

換을 進지하게 하였다. 이 자리에서 參謀總長은 總同窓會에 對한 至大 한 관심을 表시하면서 金일봉을 總同窓會에 贊助하고 任員들에게 午 餐을 盛大하게 배풀어 주었다.



總同窓會 任員 母校 禮訪

9次年度 總同窓會 姜敏秀 會長과 任員 一行은 지난 7월 20일 오후 就任 人事次 母校인 空軍士官學校(校長 朱昌成)를 禮訪하여 母校와 總同窓會 發展方向에 對

해 眞摯한 意見交換을 가졌으며 總同窓會가 主管하는 3사체전 代表生徒를 위한 激勵은 母校에서 3사체전 前에 實施하기로 하였다.



3사체전 必勝을 爲한 激勵 行事 開催

공사총동창회(會長 姜敏秀)는 금년 3사체전에 참가하는 대표생도들과 관계관들을 격려하기 위한 '필승의 밤' 행사를 8월 31일 하늘공원에서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총동창회 임원, 각 기생 회장 및 임원, 공본·공사 지휘관 참모 및 대표생도 포함, 약 160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총동창회장은 "올해는 기필코 공사 승리의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우리의 자랑스런 후배 대표생도들이 한 여름의 뜨거운 폭염 속에서 오직 승리만을 위해 땀흘린 결실을 이번 동대문 벌에서 필승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들 총동창회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최대의 성원을 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서 교장(中將 朱昌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와 응원, 지원 등 모든 면에서 渾然一體가 되어 최상

의 준비를 해왔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를 일구어 낼 것으로 자신한다" 하고, "3사체전 승리는 우리 공사의 명譽와 尙志를 높이고 나아가, 우리 공군의 團結과 威容을 드높일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목전에 있는 승리를 쟁취하자"고 힘주어 말하고, "이번 공사총동창회에서 마련한 뜻깊은 '필승의 밤' 행사를 계기로 대표생도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선·후배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뜨겁게 성원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1기대표(會長 金英煥)의 격려사와 축배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선배와 후배 대표생도들이 함께 어울려 목청껏 공사 구호를 함께 외치기도 하고 어깨동무를 하며 '공사 응원가'와 '축구/럭비부기'를 열창하며, 식장은 "3사체전 完勝"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원은 한 목소리로 "3사

체전에서 3連勝의 위업을 달성했던 과거의 榮光을 되살려 올리는 기필코 4전 전승으로 '동대문 大捷'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최후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총력을 경주할 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이날 行事에 1期부터 49期까지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개교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앞으로 총동창회는 이런 행사를 年例적으로 개최하고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행사에 참석한 생도시절 축구대표로 완약했던 총동창회 부회장(공사9기 김성태)은 대표생도에게 격려금(300만원)을 전달하였다.



公知 및 協助事項

1. 元老會員 運營

任官50주년 期生에 對한 元老會員制度를 8次年度 定期總會에서 議決한바 9次年度부터 施行하기로 하였습니다.

元老會員期數가 되면 元로 期生이라는 禮遇를 後輩로부터 받을 뿐 아니라 理事會 別別 分擔金이 免除되는 惠澤도 있습니다.

2. 弔花 및 弔旗運營

會員 別世時 弔花로서 總同窓會의 弔意를 表하도록 制度的으로 施行하며, 弔旗 活用은 각 기생의

운영방침에 따라 회원의 직계가족에 한하여 活用 가능합니다.

3. 總同窓會 會報

總同窓會 會報는 年 4회 發行하고 있으며, 各 期의 活動事項과 會員의 消息紙의 役割을 다한 計劃이며 많은 原稿 協助를 바랍니다.

특히 引服務 혹은 轉役 後 身上에 일어났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보내주시면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4면에 계속>

<3면에서 이음>

4. 總同窓會 會員證 交付 擴大

現在 總同窓會 會員 中 430여 명 이 同窓會 會員證을 交付받아 모교 출입과 체력단련장 이용에 많은 편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繼續 弘報하여 많은 會員이 會員證을 交付하도록 하겠습니다.

5. 總同窓會 배지

총동창회는 7차년도부터 매년 500개의 배지를 제작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1,000개를 제작하여 3사체전 격려행사시 각 기생대표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예산 관계로 많은 양을 주지 못함을 이해하시고 배지가 필요하신 각 기 대표(총무)들께서는 배지를 총동창회에 신청하시면 제작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개당 950원).

6. 理事會 運營

總同窓會 8차년도까지 理事會 運營은 1기 先輩로부터 總同窓會 運營期數에 20個期를 더한 期 任員(會長, 期에서 選任된 理事 4명)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9차년도부터는 理事會를 運營하는 期는 同一하나 各 期 理事(會長, 副會長, 總務)로 構成합니다.

各 期 理事會費는 9차년도부터 期別 分擔金으로 名稱과 內容이 變更됨에 따라 1期 先輩(元老)는 免除, 總同窓會 運營을 맡았던 期數(2기~8기)는 40만원, 그리고 나머지 期數(9기~29기)는 60만원으로 定하였습니다.

7. 期別 現況把握

總同窓會의 會員 現況把握은 同窓會 業務遂行 中 매우 중요한 일로써 各 期生 總務들께서는 隨時로 總同窓會와 連絡網을 維持하고 會員의 身上變動을 通報하여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8. 基金 運營

總同窓會의 基金은 公信力 있는 金融機關에 預金하고 9차년도에 납부된 平生會費와 利子 그리고 運營金 殘額을 基金으로 積立할 計劃입니다. 아울러 金融 事故時 金으로 運營 期數인 9期士官이 責任을 지집니다.

9. 會費 納付

各 期 會長(총무)은 會員의 平生會費와 期別 分擔金을 今年 내로 納付하도록 督勵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강영진(8기)의 차남 석원(군), 9/15 김상록(8기)의 차남 태환(군), 9/23 이영락(9기)의 차남 상수(군), 6/24 김홍래(10기)의 장녀 연신(양), 9/23

이수길(10기)의 차남 준선(군), 7/14 이병길(13기)의 장녀 이송(양), 9/16 김대욱(15기)의 장남 준형(군), 9/16

* 자녀 결혼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전보 및 회보에 게재하여 다같이 축하하겠습니다. 동기생 주소 요구시 주소록을 인쇄해 드리겠습니다.

부 음

박차식(4기) 9월 4일 별세
전희선(4기) 8월 20일 별세
박참수(7기) 6월 18일 별세

홍종건(12기) 6월 28일 부친상
이요섭(26기) 6월 28일 부친상

* 총동창회 조기 활용(직계가족까지)을 권장하며, 회원 별세시 총동창회 명의로 조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생 주소 요구시 주소록을 인쇄해 드리겠습니다.

시 상

박용진(4기) 4차년도 회장

지난 6월 27일 예술의 전당에서 총원공 박문수 압행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그의 문학성을 기리기 위하여 총원공 황금 마패 문화상 문학부문 공로특별 대상을 수상했다.

會 員 動 靜

문화유적 탐방(1기)

1期士官(馮友會·會長 金永煥)은 9월 5일 강화군청 문화원의 招請을 받아 강화지역을 탐방하였다. 오전에는 고인돌, 강화역사관을 탐방하고 오후에는 분오리 돈대(유형문화재 제36호), 정수사, 함허동천, 진동사,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을 탐방하고 한말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의 격전지를 돌아보고 歷史認識을 새롭게 하고 돌아왔다. 점심은 해변 등나무 횡집에서 지난 50년간의 동기간의 友情을 더욱 다졌다.

七旬을 바라보는 新星會(5期)

5期士官(新星會·會長 崔泓善)은 2001년에 동기생 親睦活動을 積極의으로 推進·修行하고 있습니다.
- 회원수첩 : 회원수첩을 제작하여, 해외 동기생까지 배포
- 등산모임 : 북한산(매월 2, 4주 화요일, 10:30/3호선 연신내역 3번 출구)
- 바둑모임 : 저스핀기원(매월 2, 4주 목요일, 13:00/2호선 강남역 7번 출구)
- 골프모임 : 친선 골프 대회(11월 별도 계획 등보)

문화유적 답사(9기)

9期士官(銀河會·會長 姜敬秀)은 9월 27일 1박 2일 계획으로 동해안지역 문화유적(오죽헌, 낙산사, 신홍사 등)을 부부동반하여 답사하기로 하였다. 이번 동해안지역 문화유적 답사는 총동창회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동기생간 친목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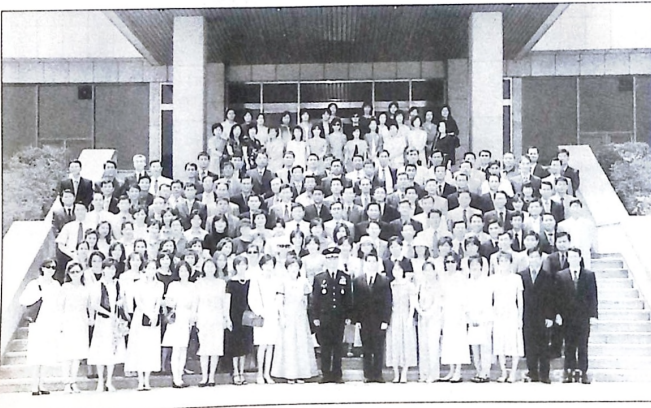
任官 20주년 記念行事(29期)

29期士官(鵬鳥會·會長 李哲鎔)은 任官 20周年 記念行事를 지난 6월 9일 母校에서 夫婦同伴하여 盛大하게 하였다.

學校施設과 教育環境이 눈부시게 발전한 母校에서 校長 및 指揮官參謀로부터 열렬한 환영과 후배생도로부터 星武儀式(열병분열)을 받고 20년 전의 追憶과 感激을 되새겼다. 그리고 期生 全員이 釀出하여 모교 發展基金 600만원, 空士 總同窓會 50만원, 少年 少女 家長(서울 송파구 가락동 李某君) 돕기 誠金 500만원을 전달하는 뜻 깊은 任官 20週年 행사를 하였다.

주소변경

기수	성명	주소	전화번호
1	안창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율리핀신수기자촌(A) 308-503	406-8486
1	윤자중	서울시 동작구 상도2동 414 견영(A) 102-711	824-9497
2	김영식	서울시 중구 신당동 367-4 남산타운(A) 17-1503	2256-2513
2	오세균	서울시 관악구 봉천5동 1709 관악르미타운 119-202	3285-7368
2	우기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6-145 금포(A) 나-410	3476-3559
2	정병철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한신3차(A) 8-501	6225-1478
2	최영선	경기도 용인시 남동 313-4 은화3 사인빌 A-4	031-332-3963
3	극대현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덕육빌라 203호	3426-0006
3	김상철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현대5차(A) 503-1903	2068-1189
3	김태석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45-4 코포(A) 107-1302	031-567-7229
3	장동훈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1162 행원마을 111-1202	031-272-2120
3	전복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2지구 동신(A) 1103-704	031-922-3817
4	정현국	충남 예산군 삼교읍 송산리 산94	041-337-2284
4	김재관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520-1 열매마을 816-1204	042-477-0356
5	성재향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큰마을현대(A) 122-604	031-914-1351
5	정강수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76-1 삼환(A) 102-704	2068-3025
5	정봉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를 죽전리 941 벽산(A) 303-103	031-264-9528
5	정재식	경기도 용인시 수지를 삼현리 30 성원(A) 118-1303	031-262-6793
6	고효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55 백마삼성(A) 117-1104	031-907-5408
6	박갑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침명마을 삼익(A) 325-2001	031-203-5922
6	이상경	광주시 남구 봉산동 금포2차(A) 204-104	062-653-6628
6	이수영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29 삼아맨션 마-301	031-665-1866
6	정상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2 무지개마을 LG(A) 213-1503	031-713-8443
7	김태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1 무지개마을 청구(A) 505-1801	031-711-1240
7	박중주	경기도 구리시 토경동 삼섬(A) 301-1301	031-555-8848
7	박재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305-15 현대파크빌자 401호	031-388-7128
7	최호식	경기도 오산시 원동 814-2 운암 청구(A) 102-602	031-372-4821
9	김중희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삼성레미안(A) 108-904	835-7738
9	남무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전자동 181 삼록마을 보성(A) 404-203	031-719-4534
9	이용세	경기도 용인시 수지를 성북리 LG2차 203-701	031-266-3978
9	최양중	서울시 구로구 개봉2동 407-11 현대(A) 110-1702	2617-2092
9	최일영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91-11 삼익빌라 302호	3463-3304
10	장영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313 반포프라자 511호	3478-0080
11	윤동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 1510-1 삼성(A) 108-1801	
11	정지수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1-7 소일(A) 381-102	031-391-3142



<4면에서 이음>

기수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13	김진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마북리 연원마을 벽산(A) 114-1601	
13	이승배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와동리 603-10 현대(A) 105-1801	031-947-8066
13	이회관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83 탑스프림(A) 109-1404	031-947-3076
13	태홍민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4가 800 대우(A) 104-2002	2292-8811
14	김윤암	대구시 유성구 전민동 464-1 엑스포(A) 411-1302	
14	류조형	서울시 동작구 사당2동 105 극동(A) 102-410	595-9631
14	소진환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07-11 현대(A) 115-1201	2066-2141
16	김희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삼북리 LG빌리지2차 206-307	031-266-6773
16	함중하	서울시 마포구 토정동 138 한강 삼성(A) 103-603	3272-1742
17	김운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49 현대 대우(A) 807-1602	043-295-2058
17	차욱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2동 호수마을 삼관(A) 306-1004	031-904-1096
18	오병한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2동 464 한화(A) 101-1306	722-1409
19	김봉득	대전시 유성구 원신동 393-1	042-822-1927
20	최수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샘마을 대우(A) 104-701	031-422-0791
21	박경석	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 555 서울 가든(A) 3-102	3494-4977
21	박용복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입광(A) 13-103	525-2389
23	박정배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4934-1 삼성(A) 111-102	832-3266
24	김익경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전민마을 월드(A) 402-501	031-982-7446
27	신해철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부영(A) 103-1503	019-605-9869
27	박창권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대림(A) 8-301	
30	김원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1 파크타운 107-406	031-712-0647
33	김봉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풍년마을 신명(A) 102-302	031-983-3352
33	이영춘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목동 삼성(A) 101-702	652-6765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2. 모교의 전통과 명예 계승
 3. 모교의 발전에 기여
 제 3 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원로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공군사관학교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및 임관된 모든 동문들을 포괄한다.
 2. 준회원은 공군사관학교에 입교 및 재학은 하였으나 졸업의 영예를 누리지 못한 동문들을 지칭한다.
 3. 명예회원은 공군사관학교와 깊은 연고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 총회에서 인준한 인사를 지칭한다.
 4. 원로회원은 정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임관 50주년을 맞는 정회원으로서, 임관 50주년이 되는 해의 정기총회에서 추대한다.
 제 5 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의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가. 현역에 복무 중인 회원들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당해 동기회의 예비역 회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예비역 회원들이 없는 기생회원들은 동기생 회장으로 하여금 총회에 위임할 수 있다.
 나. 현역에 복무 중인 회원들의 총동창회 임원으로서의 피선거권은 유보 또는 면제토록 한다(기생회장은 예외로 한다).

2. 준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3. 원로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제 6 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의 의무는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분당의 의무를 가진다. 단, 원로회원은 제반 기별 분담금과 회비분당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제 7 조(자격의 상실)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명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임원의 종류 및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2명(상임부회장 1명을 둔다.)
 3. 김 사 : 2명
 4. 이 사 : 임원기에 포함된 각 기의 회장, 부회장 및 총무
 5. 사무총장 : 1명
 제 9 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회원 중에서 아래와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는 임원에 포함되는 각 기의 회장, 부회장 및 총무로 하며, 임원에 포함되는 기의 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3. 상임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10 조(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결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구성한 후 총회에서 주인의 받기로 하며, 구성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

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감사는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회무 및 행정업무를 관장 수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2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 중 회의 당일 참석인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각 기생회장 및 본회 이사는 총회 구성 필수요원이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으로 대할 수 있다.
 제 13 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회 소집하며,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회 이사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16 조(이사회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 17 조(기능) 이사회는 총회에 대한 상임의결기관으로서 아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재정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제 18 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9 조(정족수) 이사회는 구성인원의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20 조(제 위원회) 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 위원회와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 21 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아래와 같다.
 1. 본회 임원기의 분담금
 2. 전 회원의 평생회비
 3. 회원의 찬조금
 4. 기타 찬조금
 제 22 조(재정관리 및 운용)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정관리 지침을 별도로 정한다.
 제 23 조(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관리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24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6월 30일에 마감한다.

제 7 장 일반사항

제 25 조(기생회와의 관계) 본회는 각 기생회와의 상호지원과 기생회간의 의견 조정 그리고 필요 정보 전달을 하며 대외적으로는 동창 기능을 대표한다.
 제 26 조(행정사항) 본회 사무와 특별기획사업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산하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직제 등 기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27 조(기타사항) 본회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설립목적에 입각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 28 조(집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1996. 6. 27.)로부터 발효한다.
 제 29 조 본 개정회칙은 의결된 날(2001. 6. 15.)로부터 발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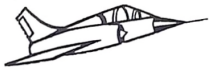
제정 관리 지침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이하 동창회라 칭함) 재정의 운영방법 및 기금적립과 관리의 원칙 등을 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의 가치유지 및 증식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2 조(재정 구분) 재정은 동창회 운영을 위한 경상운영비와 장기발전을 위한 재정기금으로 구분한다.
 제 3 조(기금의 적립) 기금은 다음 기준에 의해 적립한다.
 1. 평생회비와 재정기금 출연금은 매분기별로 적립한다.
 2. 매회계연도 결산 후 경상운영비의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자금 시정을 감안하여 기금으로 적립한다.
 3. 기금의 적립은 내부 품의에 의해 실시하고, 매년 6월 총회에 종합 보고한다.
 제 4 조(기금의 관리 및 사용)
 1. 적립된 기금은 경상운영비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한다.
 2. 적립된 기금의 원본은 원칙적으로 감소시킬 수 없다.
 3.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은 다음 경우에 인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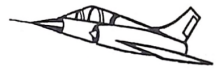
(1) 회기말 업무 인계인수시
 (2) 총회에서 인준한 경우
 4.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고문 2인(전년도 및 전전년도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과실금의 사용) 기금의 과실금은 경상운영비 및 이사회에서 승인된 특별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 6 조(기금의 운용)
 1. 기금은 안전성 및 수익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 예입하거나, 국·공채 및 제1금융기관에 발행하거나, 저금을 보증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2. 기금은 주식 또는 부동산에 투할 수 없으며, 수익 목적의 대졸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1. 6. 15.)
 제 2 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적립된 기금은 이 지침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



母軍·母校 短信



공군참모총장(대장 李億秀), 공군정책설명회 가져

-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공군의 정책방향 설명
- 공중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로 국민 안전 보장

○ 李億秀 공군참모총장은 9월 14일(금) 항공회관에서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항공우주군 도약을 위한 공군의 준비'라는 주제로 공군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 이날 李총장은 산업사회에서 정보지식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21세기 전략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 공군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공군의 대비태세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 李총장은 "21세기에는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해 핵심적인 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군력 건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우리 공군은 '전략형 공군력 건설'과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작전개념 수립과 무기체계의 현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설명회가 끝난 후 李총장은 참석한 성우회 회원들과의 오찬을 주재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후배 및 동료 장군들에게 무척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우리 공군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다.



空軍 前半期 業務 分析

○ 공군은 지난 7월 21일 오전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李億秀 공군참모총장 주재로 공군본부 참모 및 사령부급 이상 부대 계획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01 전반기 업무 및 사업성과 분석회」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01년도 전반기 업무성과 및 진행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하반기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군 개혁과제 추진현황 ▲공군 발전 10대 중점 추진과제 추진현황 ▲참모총장 지시사항 추진현황 ▲예산 및 비예산 사업 분석 ▲후반기 주요 계획업무 ▲참모총장 훈시순으로 진행됐다.

○ 한편, 이날 전반기 업무분석 이후에는 '01년도 하반기 계획 업무의 성공적 추진과 확고한 군사 대

비태세 유지, 핵심투자사업 적극 추진, 정보화·과학화 군 육성,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통한 『새천년 정예공군 육성』 기반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로 다각적인 추진방안이 논의되었다.

○ 이날 李총장은 훈시를 통해 "전반기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를 통해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뒷받침해 왔음은 물론, 많은 행사와 업무를 내실있게 수행해 준 전 장병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며 "각 분야별로 전반기 업무성과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 장병이 적극적으로 자제로 임무수행에 매진하여 『새천년 정예공군 육성』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자."고 말했다.

시작한 이래, 1953년 3월 26일 강릉기지에서 보유한 F-51전폭기를 출격시켜 351고지에서 아 지상군을 지원, 적 위협을 저지함으로써 한국공군의 대표적인 근접항공지원 작전으로 기록되고 있다.

○ 이번 「351고지 작전지원 기념행사」는 ▲전황보고 ▲기념비 제막 ▲기념사 및 축사 ▲현시낭송 ▲6·25 관련 군사제창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351고지 사진전」을 개최하여 참전용사들의 당시 상황을 회고하고, 당일 통일전망대

를 방문하는 일반관광객들에게 살아있는 전쟁의 역사를 보여 주었다. ○ 한편, 이번 사업을 주관한 공군 6·25 사업단장 이점호 대령(공사 20기)은 "공군의 대표적인 항공지원 작전으로 알려진 351고지 근접항공 지원 작전 기념행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볼 수 있었다."며 "6·25 전쟁의 교훈을 계승하고 국내의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전후세대의 국가관 확립과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生徒 夏季 生還 訓練

○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8월 6일부터 대전 해수욕장 인근 생환훈련장에서 1주일간 2학년생도 195명을 대상으로 전투조종사에게 요구되는 기초체력 및 정신력을 배양하고, 해상에서 비상상황에 직면할 경우에 필요한 생존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해양생환훈련을 실시했다.

○ 해양생환훈련은 해양 생리현상을 체험하고 생존에 필요한 영법을 숙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도들은 수중 생리 이론 교육 및 비상상태 행동요령과 응급 처치법 교육 등 수상안전 과목을 이수한 후 개인별 능력에 따라 4개 반으로 편성하여 수영시 페이스 조절법, 인명, 호흡법, 파도타기 등 바다에서의 영법을 익혔다.

○ 금번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오진숙 생도(공사 52기, 20세, 여)는 "직접 바다에서 훈련하니 더욱 실감나는 생환훈련이라고 느끼지

며, 힘든 훈련이지만 전투조종사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하여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훈련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 정대주 준장(鄭大柱·공사 23기)은 "이번 하계집중훈련을 통하여 사관생도들이 장차 21세기 선진정예공군을 이끌어 나갈 유능한 지휘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하계훈련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 한편,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8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5주간 전 생도들을 대상으로 기초전투능력을 배양하고 전투조종사로서 필요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키우기 위한 하계집중군사 훈련에 돌입했다.



351고지 작전 기념행사(600회 출격, 3,000명 희생)

○ 6·25 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 지역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351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1952년 7월부터 휴전협정이 이루어졌던 1953년 7월까지의 치열한 지상전투를 벌인 끝에 사수함을 기념하기 위한 「351고지 작전 기념행사」를 7월 18일(수)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행사장에서 이억수(李億秀)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국방부 6·25 사업단장 백선엽 장군,

참전 조종사, 강원거주 참전용사, 고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였다.

○ 351고지는 인근 원비산과 함께 강원도 고성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이 고지 사수를 위해 아군은 1952년 7월부터 1953년 7월 18일까지 3,000여 명의 희생을 감수하며 3차례의 치열한 전투를 수행하던 곳으로, 공군은 1952년 10월 28일 조직적인 공지(空地) 합동작전을

회원 투고란

첫 출격 이 배 선(공사 1기)

사전에서 약 1년간에 걸친 조종 훈련 과정을 수료한 공군사관학교 1기생 13명의 G-Class A반 요원들은 전투 출격을 위해 공군 전진 기지인 동해안 강릉에 위치한 제10전투비행단에 배속되었다. 미 공군소속 C-47형 수송기로 강릉에 도착한 것은 1952년 12월 초 오후 6시경이었다.

동해안의 싸늘한 바닷바람! 12월의 이른 어두움!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 전쟁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긴장감을 감추려는 전우들의 표정이 역력했다. 우리는 수송기에서 각자의 사물함을 내려 차림에 실었고 배정된 조종사 숙소에 도착한 후 각자 짐들을 정리했다. 철침대도 아닌 목침대가 전부인 조종사 숙소. 옆 전우와의 경계는 사체 사물함이었는 데, 이것이 나의 책상이 되기도 하였고 또 침대의 가장자리는 의자 내용으로 사용되었다.

휴게실과 독서실, 그리고 오락실 같은 위락시설이라고는 전혀 없는 환경이었지만 우리는 불편 한마디 없이 오히려 매일 출격에만 전념하고 있는 선배 조종사들을 보며 존경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강릉 활주로 중심 우측에는 비행단본부와 지원부가 있었고 좌측 바다에 가까운 끝부분에 조종사 숙소와 의무실 식당이 있었으며 모든 건

물은 쉼터라고 하는 둥근 모양의 야전용 철관 건물이었다.

산돼지 같은 선배 조종사

저녁식사를 위해 우리는 조종사 식당으로 갔다. 산돼지 같이 와일드한 모습의 빨간 마후라 선배 조종사들 보니 정말 믿을지스러웠고, 언제 우리도 저 정도의 관복에 찬 모습으로 비추어질까 하고 생각했다. 선배들은 모양새 없는 낫고 둥근 오일 스토브(Oil Stove) 주변에 용기종기 모여 앉아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시름하고도 구수한 냄새는 우리들의 식욕을 돋우어 주었다. 비록 야전 건물에서 하는 식사였지만, 우리들의 젊음과 낡은 주크박스(Juke Box)에서 흘러나오는 냇길 콜(Natking Cole)의 "Too Young"과 "Pretend"의 아름다운 선율은 식당 분위기를 낭만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또한 전쟁의 긴박감과 불안감으로 늘 경직되어 있는 병아리 신참 조종사의 긴장과 초조함을 씻어주기에 충분했다. 90여 차례의 출격을 하고 돌아오면 늘 나를 어머니의 품처럼 편히 쉬게 해 주었던 나의 첫 번째 보급자리에 대한 인상은 오랫동안 기억되어졌다.

한편 비행장에서 약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동해안의 도시 강릉. 이곳은 젊은 전투 조종사의 사랑과

많은 추억이 담긴 잊을 수 없는 휴식처였고 정다운 고향 같기도 한 도시였다. 강릉전진 기지에 배속된 우리는 비행장 주변의 지형을 익히기 위하여 2~3회의 관측 비행을 실시하면서 출격명령을 기다렸다.

悲壯한 覺悟

드디어 1952년 12월 14일 첫 출격 명령이 하달되었다. 처녀출격에 대한 긴장과 흥분, 그리고 불안감 등 여러 가지 생각에 방잡도 실친 채 아침점심 밥과 함께 참가하여 출격편조, 목표 및 종류, 그리고 적 대응포화 배치 현황 등 각종 정보와 상황설명을 빠짐없이 적었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모든 것이 생소하게 느껴졌다. 당시 한국 공군이 주로 수행했던 항공작전은 적의 후방군사 시설인 교량과 철도의 파괴와, 보급물과 병력 집결소에 대한 공격(Interdiction), 그리고 Close Air Support인 육군 지상군 암호 작전이었다. 재공권 확보를 위한 공중전인 Air to Air Mission은 적 공군 JET형 전투기였던 MiG-15와 대항한 성능의 F-86 전투기를 보유한 미 공군이 담당하였다.

오늘 작전에 참가하는 항공기는 4기 편대 16대로 구성되었고 이중 편대는 4편대 2번기에 편성되었다. 공격목표는 DU0309 사리원 북방에 있는 보급물과 병력집결소, 그리고 적 지상군의 사단 본부였다. 출격 직전 편대군장은 우리에게 자세한 주의와 요망사항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편대장은 첫 출격하는 나에게 편대장기를 놓치지 말고 잘 따라 다니는 것이 목표에 대한 정확한 공백에 우선한다는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등 자상함을 보여주었다.

파라슈트, 해상구명대 등 비상장구와 권총을 항공 장구반에서 수령하여 우리는 배당된 항공기로 가기 위해 트럭에 올랐다. 모든 것이 서툴지만 한 우리는 그저 선배 조종사들이 한 대로 눈치를 보며 따를 뿐이었다. 트럭 안에서는 잠시 후에 적지에서 적과 싸워야 될 전우들의 긴장된 표정과 불안한 모습, 그리고 별로 대화가 없는 고요함이 흐르고, P.S.라고 하는 철관으로 된 유도로(Taxiway)를 달리는 트럭바퀴 소리만 더욱 요란하게 들렸다.

잠시 후 배당된 항공기 앞에 하차했을 때 대기중인 정비사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내가 첫 출격을 하는 신참 조종사임을 알아낸 정비사는 각별히 신경써 주는 것 같았다. 500파운드의 폭탄 2개와 2.75인치로켓 2발을 무장한 P-51 무스탕 전투기의 모습이 믿음직스럽기만 했다. 항공기의 모습은 정말 도중 약어입처럼 길쭉하고 무딘 모양의 P-51 항공기 기수를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며 나는 오늘의 첫 출격비행의 무사하고 성공적인 임무완수를 위해 항공기에게 부탁했다.

적의 대공포화에 의한 희생과 돌발적인 항공기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지만, 열심히 잘하자, 그리고 하늘의 뜻에 따르는 신념으로 마음을 가다듬었고, 꿈 모든 불안감과 걱정은 동쪽을 침범한 적에 대한 분노심 아닌 적개심으로 돌변했다.

적지를 향하여 출격하는 조종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칠까 모든 언행에 극히 조심스럽게 시중을 들이준 후 정비사는 나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리고 나는 항공기 엔진의 시동지기가 있을 때까지 목표지점까지의 항법연구에 전념하였다.

目標 上空 到達

100만분의 1지도, 50만분의 1지도, 5만분의 1지도, 그리고 항공사

진을 가지고 목표까지의 항법과 목표를 확인하였다. 엔진시동을 취하여 모든 것은 사전 약속에 따라 가능한 한 수호신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 기지를 이륙한 4개 편대로 구성된 16대의 항공기는 기지상공을 선회한 후 기지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적지를 향했다.

철원상공을 지나자 적의 고사포탄의 폭발로 인한 검은 연기가 항공기 우측에서 터졌다. 모든 항공기는 좌로 서서히 기동을 하고 또 다른 좌측에서 포탄이 터졌다. 다시 우측 좌측, 그리고 아래, 순식간에 고사포 폭발연기로 16대의 전투기는 둘러쌌다. 약 5~10분간의 고사포 공격에 별다른 피해 없이 우리의 목표를 향한 비행은 계속되었다.

목표상공에 도달한 후, 제1편대 1,2,3,4번기, 제2편대 1,2,3,4번기순으로 종대 길이를 대형을 유지하며 폭탄공격에 이어 로켓 공격 기중사격순으로 공격이 진행되었다. 이때 나는 D편대(제4편대) 2번기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6대의 우리 전투기에 의한 공중공격의 위력은 대단하여 지상 목표물 여러 곳에서 큰 폭발에 의한 화염과 검은 연기를 목격하였으며, 선배 조종사들의 승세와, 잠시 잊은 제 명중을 위한 조준에 전념하였다. 편대장기를 놓치지 말라는 주의사항에 따라 공격의 정확성보다는 편대장기를 따라 다니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한편, 우리 공격에 대항하는 적의 지상포화도 치열하여 그야말로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처절한 싸움이 20~30분간 계속되었다. 공격이 끝난 후 적지를 통과하여 아군지역에 진입한 순간 나는 긴장된 마음을 추스리며 안전한 비행과 멋진 착륙을 위해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해야 했다. 착륙 후 항공기 엔진을 끄고 나서야 사선에서 돌아온 용사의 안도와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 등이 이루어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불안과 긴장, 그리고 공포감과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사명과 더불어 적에 대한 적개심 등 여러 감정들이 연속적으로 밀려왔다.

이와 같은 출격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될 것이고 당분간 나의 생활의 전부가 될 것이므로 나는 이 생활에서 최선의 길을 모색하여 실천해 나가기로 굳게 다짐해 보았다. 성공적인 임무수행에 관한 이야기 뜻을 뒤로하고 우리는 대기 차량에 몸을 실으며 출격 후의 브리핑을 위해 작전실로 향했다. 브리핑 이후 푸짐한 전파에 더욱 만족하며 허먼너의 하루 임무는 종료되었다.

저녁에는 몇몇 전우들과 함께 강릉 시내에 나가 첫 출격을 축하하며 마치 전쟁의 영웅이 된 듯 소주잔을 부딪치며 정신없이 수확한 적 포화에 대한 회피기동과 젓먹이 아기가 엄마를 찾아 다니듯이 필사적으로 편대장의 비행기만 쫓아다녔던 첫 출격, 그리고 공격 후에 퍼붓듯이 쏟아지는 적군 지상 포의 불덩어리 등 이야기의 꽃을 피웠던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약 력 소 개

- 1931년생(함흥)
- 1948년 원남
- 1949년 공사 입교(1기)
- 1950~'53년 92회 출격
- 1970년 예편(대령)
- 1970~'91년 민항기(대한항공)
- 1991~정년퇴직(기장, 비행시간 : 2.1만 시간)
- 1992~이민(미국)

<6면에서 이름>

新任將校 母校사랑

○ 49기士官(한음회 회장 權承煥)은 지난 '97년, 사상 최초의 여자사관생도 입교를 시작으로 올 3월에는 최초로 정규 사관출신 여군소위를 탄생시키는 등 가입으로부터 졸업시까지 4년간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온 공사 49기 동기생회가 7월 18일(수), 후배 사관생도들을 위한 도서기증사업을 추진, 최시간 도서 93종 104권(시가 100여만원 상당)을 모교 도서관에 기증하여 또다

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 「도서기증사업」을 추진한 49기 동기생회 총무 지주연(池周妍, 23) 소위는 "졸업 후에도 후배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모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던 중 도서기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선배님과 후배들에게도 이 같은 모교사랑 실천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 시대의 孝文化

나의 꿈, 빨간 마후라

孝는 禮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을 하면서,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반목과 대립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여·야간의 극한 대립으로 치달고 있고, 언론과 언론, 정부와 언론, 지식인과 지식인,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계에서까지 반목하고 있다. 언론도 신문과 신문, 신문과 방송이 대립 양분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실로 양분화 흑백논리로 가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전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찾을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孝文化를 창달하고 민주주의 文化를 꽃 피우려 국민이 단합하고, 결국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근대화는 중세의 암흑시대를 극복하고 고대의 이상을 찾아 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이룩한다. 이른바 르네상스의 꽃이 핀 것이다. 이에 새 시대에 새로운 孝文化를 고대 유교사상의 근본인 禮에서 찾아야 한다.

孔子的 사상은 仁인데 그는 仁을 克己復禮라고 해서 자기를 참고 이기는 가운데 예를 찾은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孟子는 性善說에서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을 주장했다.

이 五倫에서 제일 먼저가 父子有親이다. 군주에게 충성하듯 아버지에게 孝道라하는 말이 아니라, 국가보다 가정이 근본이라는 말이다.

‘親’자는 나무 위에 멀리 바라보는 모양을 象形한 글자이다. 친하다는 것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모든 것을 서로 터놓고 의논하고, 가까이서 보고 배우고 꾸짖고 깨우쳐 하는 일상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이것이 참다운 孝인 것이다.

다음으로 君臣有義이다. ‘義’자는 ‘부’자 아래 ‘我’를 놓은 글자다. 나의 마음을 양처럼 순하고 착하게 가지고 나의 몸을 희생하며 제물로 삼으라는 뜻이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남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리가 없는 사람이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다. 忠臣은 不事二君이란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이제 夫婦有別을 보자. 夫婦는 그들이 공동으로 꾸미는 가정에서 일을 분담해서 생활한다. 적절히 분담은 일치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분담을 통해서 일치를 이룰수록 더욱 가깝 것은 가려야 한다. 女必從夫는 잘못된 윤리라 하겠다.

나머지 두 덕목을 합친 五倫은 모두 사랑의 형태를 人間關係의 경우에 따라 알맞게 표현한 것이다.

이 다섯 가지 덕목은 모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때, 그것은 禮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禮는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말이다. 사랑할 줄 알면 이미 그는 禮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남을 공경하는 마음이고, 남을 존중으로 대하는 자세이고, 화평하게 하는 태도이다. 그럼으로 五倫의 바탕은 禮인 것이다.

그 五倫 가운데 첫째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것이다. 夫子가 서로



강 옹 구(공사 6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이다. 아들은 사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誠을 다해 섬기게 되니 이것이 바로 禮를 바탕으로 한 孝文化인 것이다. 우리는 권위주의의 시대의 忠孝文化를 극복하고 옛날의 禮를 바탕으로 한 禮孝文化를 민주사회에 꽃피게 하여야 한다.

孝教育의 첫 번째 중심과제는 自由理念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민주와 함께 도입된 개념이 방종으로 잘못 인식되어 있다. 자기 자신에 관해 자유로워야 한다는 말(J.S. Mill)의 확실히 지나친 개인주의는 가족도 마다하고, 孝文化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참다운 자유의 정신은, 자기운명은 자기가 개척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의 정신이기도 하다.

禮는 사랑하는 마음이라 했다. 사랑하는 것은 내 뜻까지 다 바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것을 챙긴다는 것은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禮를 바탕으로 하는 孝는 父子有親이라 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윤리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하며 이끌어 준다. 자식은 아버지를 熱과 誠으로 받든다. 그리고 자기 말은 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제 부모도 자식도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축적됨에 따라 부모도 자식도 신뢰적이 된다. 이제 가족은 개별적이지만 상호 신뢰 능력은 마음에 담고 공동목표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가족을 이룩하자라는 자기 능력에 관하여 자기 신뢰적이면서 가족의 근거가 되는 응집능력이 형성된다.

새 시대 孝文化는 自由를 바탕으로 한 禮孝文化를 꽃피우는 것이다. 또한 종교를 통한 孝 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기독교의 본질과 역사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믿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여 기독교는 孝와 거리가 멀거나 마치 불효스러운 종교로 착각하고 있다. 기독교에서 제사 대신 추모예배 기도로 조상의 은덕을 참미하니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며, 바울사도는 저희는 먼저 자기 집에서 효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孝와 倫理의 사상은 섬길 어디서나 강요하고 있다. 종교란 통한 孝 교육을 감화하여야 한다. 이런 정신문화가 꽃 피워질 때 통일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투 조종사가 되는 그날까지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 士官學校에서 4년, 그리고 212飛行教育大隊에서 點呼시간마다 부르던 노래.

생각해보면 아주 어릴 적, 친구들과의 고무줄 놀이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었던 것 같다. 항상 친근하게 내 곁에 존재해 왔던 ‘빨간 마후라’라는 말이 지금 初等訓練 과정에 입과해 있는 나에게서는 아주 새삼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이것일까. 훈련에 입과한 후 지금까지 操縱士가 되는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알고 난 지금에 빨간 마후라 軍歌를 다시 부르게 되면, 가슴 한구석 뜨거워진다. 조종사의 길에 死生決斷을 내겠다고 각오한 나에게 있어서 ‘빨간 마후라’라는 말은 더 이상 애사롭게 지나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아직 비행에 관해 아는 것도 별로 없는 햇병아리 조종 학생에게도 ‘빨간 마후라’가 뜨거운 감정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니, 빨간 마후라를 이미 목에 두른 이에게나 빨간 마후라를 목에 걸고자渴望하는 이에게나 ‘빨간 마후라’의 魂’은 그 熱情만으로도 공감되는 鳥人的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영순 教授께서 지으신 ‘하늘의 받아준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빨간 마후라의 혼에 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푸른색의 제복에 補色을 이루는 붉은색의 마후라를 하고 있는 조종사들에게서 소심함과 臨機應變에 의한 危機謀免, 적당주의는 가져서는 안됨을 의미하고 밝고 적극적이며 당당한 정신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빨간 마후라는 필승의 신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戰鬥操縱士의 빨간 마후라는 적에게 우군의 강인한 필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붉은색에 맞는 투철한 군인 정신을 의미한다. 겁먹기보다는 용맹스럽게, 비겁하기보다는 당당한 의지를 자신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실력 없는 용맹은 贗勇이며 자신에게 위협한 상황이 직면하더라도 毅然하게 대처해야 한다. 전투 조종사로서의 이러한 自信心, 自負心, 名譽는 크고 高潔한 희생을 주저하지 않는 정신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전설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빨간 마후라의 의미는 태양을 향하여 끊임없이 날아오르려



소위 임 수 영 (공사 49기)

다 불타버린 불세의 뜨거운 정열과 그 꿈을 위하여 모진 고통을 감내(堪耐)함을 뜻하는 피와 땀의 상징이 아닐까 생각한다.

빨간 마후라의 하나하나의 의미마다 가슴 한구석 뜨거워진다.

나도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싶다. 빨간 마후라는 이제 사나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어릴 적 영화 속에 나오던 그 멋진 하늘의 사나이처럼 나도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구름따라 흐르고 싶다.

하지만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요구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며 고통을 감수(甘受)해 내야 하며, 얼마나 큰 使命感을 가져야만 하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빨간 마후라를 목에 걸겠다고 설블리 욕심을 부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관학교 假入校 훈련 때부터 가슴속에 새겨놓은 함찬 구호가기에 나는 빨간 마후라를 꿈꾸고자 한다.

“고통은 순간이다. 우리에게겐 꿈이 있다...”

훈련에 임하고 있는 우리 모두 진정한 鳥人이 되어야 한다. 하늘에 살고 하늘에 죽을 死生觀으로 나의 愛機와 조국의 영공을 사랑하고 수호해야 한다.

태양보다 더 뜨거운 정열과 아름다운 犧牲精神, 불타는 闘志力으로 진정한 鳥人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를 자격이 있을 것이다. 훈련에 입과에 있어서 항상 빨간 마후라의 혼을 가슴 깊이 새겨두리라.

그리고 진정한 鳥人의 자격으로 기필코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리라 다짐해 본다.

전역자 조희 안내

인 터 넷 : www.airforce.go.kr(제대군인지원→전역자조회)
 대 상 : 전 전역자(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조 회 : 제대군인지원→“전역자조회” 클릭 후→신문, 기수, 성명 입력
 수 정 : 상단의 개인자료수정을 클릭→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 후 수정
 연 락 처 : 02)506-1194~5, 042)552-1194~5

빨간 마후라의 魂

진정한 빨간 마후라를 알게 되다.

나는 1970년 10월 5일부터 사천 비행학교 시절 중등비행훈련 과정(T-28A)에 입과했다. 운동부 생도들은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를 종합 4연승의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고 보너스로 7일간의 휴가를 만끽하고, 일반 조종학생들은 10월 1일 먼저 입과하여 운동부 생도들과 비행훈련을 같이 하기 위해 5일간을 기다렸다고 하였다.

그날 오후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다음날 곧바로 맹목좌석점검(Blind Cockpit Check)과 절차 맞고 상태를 시험해보겠다고 통보하여 왔다.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승리의 환호소리가 귓전에 채 사라지기도 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시험을 받으니, 그저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렇지만 이 피할 수 없는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예상했던 대로 나는 절차를 잘 외울 수가 없었으며, 눈을 가리고 항공기 좌석 계기를 짚어보기 테스트를 잘 할 수가 없었다.

기종은 T-28기로 랜딩 기어(Landing Gear)가 높기 때문에 날개도 지상에서 꽤 높는데, M 교관님이 노기번 열골로 지상으로 뛰어 내리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즉각 날개 위에서 뛰어내려 부동자세로 서 있는데, 느닷없이 교관님의 주먹이 나의 턱을 후려치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모든 것이 아련한 연기속 속으로 빠져들었다. 많은 동기생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에 서 의식을 찾으니, 나는 땅에 주저앉아 있었다. 감철 같은 럭비선수로 단련된 덩치 큰 내가, 그것도 단 항방에 떨어지다니 좀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이 떠올랐다. 온종일 좀 멍한 것 같이 지냈다. 그날 발표 전에 학생장이 담당교관을 발표하는데 오전 오전 나를 때린 그 M 교관이 바로 나의 교관이였다. 이미 전편 차수 동기생들의 구전에 의하면 악명 높은 몇몇 교관님의 소문이 나있어 담당교관 발표 후의 표정들은 회피가 교차됨을 알 수 있었다. 마치 비행수료라도 다 되었는 양 싱글벙글하는 조종학생이 있는가 하면, 마치 벌레라도 씹는 듯 열골에 우울한 표정으로 넘어 나간 모습, 그 속에 나도 "아! 이제 죽었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그날 저녁식사와 그 다음날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다. 나의 동기생인 P와 나는 같은 편조가 되어 숙소에서 고민스런 대화로 밤이 깊었는데 데도 밥집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한 것만 봐도, 그때 나에게 얼마나 충격이 컸을지 생각한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소굴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 암담함,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스타 같은 환호 속에 유탄자적하였는데 일순간 모든 것이 허물어진 기분이었다. "어떻든 비행훈련에서 도태되진 말아야 하는데..." 남들에게는 의연하고 할련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였지만 내 마음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정식으로 담당 교관님과 면담을 실시해보니 밤새도록 고민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자상하시고 더구나 비행훈련만큼은 교관을 믿고 따르



이 영 순(공사 19기)

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부드럽게 격려까지 해주시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약간의 긴장이 풀리면서 두꺼비를 굶는 시종기가 그때부터 발동하더니 그날 점심식사부터 조금씩 입맛이 되살아났다. 수료가 다 끝나갈 무렵에 안 사실이지만 운동부 중에서 한 명을 본보기로 훈을 내서 특등 기분을 일소시키고자 의도적으로 한 것이, 하필이면 내가 선정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중등비행훈련 과정이 시작되었다. 우리 M 교관님은 역시 우수한 조련사답게 비행요령을 잘 가르쳐 주심을 알 수 있었다. 조종학생들이 숙소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교관의 조종요령, 성실성, 고약한 습관과 발명 등을 이야기하며 그런대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교관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는 비행 12회째 탑승하면서, 초단독비행(Solo Flight) 가능성을 평가받았는데 교관님께서 일차로 단독비행을 나가라고 하신다. 공포의 주먹맛이 아직도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단독비행이라니? 내 자신이 믿어지지 않으며 정말 내가 단독비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교관님이 무얼 믿고 단독비행을 허락하셨을까? 기쁜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으나 내 스스로 불안한 마음이 교차되는 가운데 자신감이 서서히 살아 오르는 것을 느꼈다.

단독비행에 불합격한 동료 3명이 벌써 보따리를 싸들고 사관학교로 복귀하는데, 누가 언제 그와 같은 입장이 될지 조심스럽게 아쉬운 인사를 하면서도 그와 같은 처지가 안되길 마음속으로 빌었다. 비행 13회째 초단독비행을 실시했다. 혼자서 항공기 시동을 걸어 지상환주(Taxiing)하여 관주로에 정대해 놓고 일생일대 처음 혼자 비행 기록을 하였지만, 후방석에 교관님이 왕왕 울려대던 라디오 인터폰 소리가 계속 나의 귀를 울리는 것만 같았다. 비록 잔소리하는 교관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비행제원을 더 잘 지켜야 하는 마음에 비행과목을 교관님과 동승할 때보다 더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 같았다. 각자 주어진 구역에서 30분간 비행을 실시하고 비행기 때로 귀환하게 되었다. 귀환할 때부터 약간의 초조감이 수면되기 시작하였다. 무사히 착륙을 할 수 있을까? 첫 단독비행에 8대가 이륙했다.

우리들은 귀환루트 절차에 따라서 비행장 착륙을 위해 비행장 접근을 시도했다. 날씨가 쾌청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 없이, 그리고 말쑥할 만한 잘못도 없이 일차그룹(1st Period)은 무사히 단독비행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은 조금 말뚱을 일으켰다. 착륙하면서 활주로의 예비활주로(Over Runway)에 접지된 것과 착륙하면서 두 번이나 튀어 오르면서(Bouncing) 활주로를 이탈할 뻔하다가 겨우 접지한 2명의 학생이 있었다. 갑작스런 단독비행에 들뜨고 고조되었던 분위기가 냉랭하게 차가운 기운을 느낄 정도로 분위기가 가라앉더니만, 조종학생 모두 집합해 명령이 떨어졌다. '아이쿠! 또 기압이구나' 브리핑실에 모두 집합해 놓고 몸동이 짙질로 다섯 집합 맞았다. 빨리 매를 맞으려고 은근히 서로가 앞으로 나갔다. 먼저 맞고 나면 남들이 매맞는 모습이 왜 그렇게도 우스운지 모른다. 통곡의 벽에 손을 댄 채 한 대씩 매를 때마다 엉덩이를 뺨뺨 꼬면서 맞는 사람, 또는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매의 케도를 쳐다보며 앞뒤로 요동을 치는 동료, 냉랭하게 아무 요동도 없이 꼳꼳이 맞는 이 매를 먼저 맞고 구경을 할 것 같으면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왜 그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그것도 마음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지만 벌써 입과 후 단체기합으로 만 50여 대나 맞아 왔으니 이제 남은 데도 단련이 되어 약간의 마음의 여유까지 가질 수 있는가 보다.

그 다음날 그들은 무사히 모두 단독비행을 마치고 빨간 마후라를 수여받았다. 사관학교 4년 동안 유난히도 외쳐대면서 부르짖던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니 이때의 기쁨이야말로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 바로 사기진작의 깊은 내면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바라던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진정한 기쁨의 사기가 충전하는 것이다. 이 세상 천지를 모두 얻은 기분에서서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기 한이 없었다. 모두를 부도남이나 예인, 친구들에게 모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편지 쓰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당시 사전에서 전주까지의 길은 비포장이었으며 남강댐(너우니) 주변에는 아무런 관광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댐둑을 쌓아 놓아 물만 호수같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때 빨간 마후라의 매력 못지 않았던 선글라스가 처음 지급이 되어, 우리 조종사들에게는 빨간 마후라와 선글라스는 앙상블의 조화를 이루는 한 세트라고 할 수 있었다. 이때는 사관생도 신분이라 외출시 정복 외에는 다른 복장을 할 수가 없었으나 빨간 마후라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싶어 외출시 물레 가지고 간 후 조종잡마에 빨간 마후라, 생도모자에 선글라스는 서로 어울리지 않았지만, 이런 복장을 하고 전주까지를 관보하다 동료나 교관님을 만나 폭소를 자아내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이때 중등과정의 T-28기 단독비행은 공중조작으로 2회(2회 중 1회는 수직기동을 하는 특수비행)와 편대비행 단독비행 2회, 그 외 주요 과목으로는 왕병 및 야간비행까지 실시하여 5개월 동안(71년 3월 5일까지) 85시간을 탑승하고 수료하였다. 그 동안 단체기합으로 몸동이 맞은 대수는 75대였다. 맞을 때마다 달려와 일기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개별 비행장 착륙을 위해 비행장 접근을 시도했다. 날씨가 쾌청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 없이, 그리고 말쑥할 만한 잘못도 없이 일차그룹(1st Period)은 무사히 단독비행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은 조금 말뚱을 일으켰다. 착륙하면서 활주로의 예비활주로(Over Runway)에 접지된 것과 착륙하면서 두 번이나 튀어 오르면서(Bouncing) 활주로를 이탈할 뻔하다가 겨우 접지한 2명의 학생이 있었다. 갑작스런 단독비행에 들뜨고 고조되었던 분위기가 냉랭하게 차가운 기운을 느낄 정도로 분위기가 가라앉더니만, 조종학생 모두 집합해 명령이 떨어졌다. '아이쿠! 또 기압이구나' 브리핑실에 모두 집합해 놓고 몸동이 짙질로 다섯 집합 맞았다. 빨리 매를 맞으려고 은근히 서로가 앞으로 나갔다. 먼저 맞고 나면 남들이 매맞는 모습이 왜 그렇게도 우스운지 모른다. 통곡의 벽에 손을 댄 채 한 대씩 매를 때마다 엉덩이를 뺨뺨 꼬면서 맞는 사람, 또는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매의 케도를 쳐다보며 앞뒤로 요동을 치는 동료, 냉랭하게 아무 요동도 없이 꼳꼳이 맞는 이 매를 먼저 맞고 구경을 할 것 같으면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왜 그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그것도 마음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지만 벌써 입과 후 단체기합으로 만 50여 대나 맞아 왔으니 이제 남은 데도 단련이 되어 약간의 마음의 여유까지 가질 수 있는가 보다.

빨간 마후라의 由來

이렇게 해서 나에게 T-28기로 첫 단독비행을 마치고 수여받았던 이 빨간 마후라는 곧 조종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공군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 빨간 마후라가 공군을 상징할 만큼 유명해진 사실은, 빨간 마후라의 영화 덕분이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다. 1964년 신상규 감독이 발표한 영화인데, 그 당시 참모총장이신 장성환 장군님의 어릴적 하늘에 대한 동경, 일제시절 소년비행단에서 활동했던 이야기와 6·25전쟁 당시 공군의 활약을 들려주며, 공군조종사를 테마로 한 훌륭한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한문사 씨는 회고하고 있다. 작품의 자료 수집 차 대구기지에 갔을 때, 유치곤 장군(당시 대령)을 만나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이야기와 100회 출격에 참여한 얘기를 듣고 초창기에 피스도 등을 모아 유치곤 대령을 주 모델로 삼고 여러 파일럿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삼아 1963년 영화제작을 하였다고 한다.

조국하늘을 지키는 전투조종사들의 활약과 전우애, 그리고 사랑을 감동 깊게 그린 영화로 은 국민의 사랑과 함께 기성세대에 감동을 일으켰으며, 제11회 아시아 영화제에 출품되어 신영균 씨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여 아시아권에서도 유명한 작품이었다.

그래서 빨간 마후라 하면 유치곤 장군을 연상하리만큼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 이전에 빨간 마후라의 유래 내지는 원조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그 기본 뿌리와 혼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빨간 마후라의 실제 내력은 1951년 10월 20일, 당시 감릉기지에 제10전투비행전대에 전대장인 김영환 대령이 공무로 서울에 출장 왔다가 서울 종로구 돈암동에 사는 형님 집을 들르니, 친형인 당시 공군참모총장 김정렬 소장이 대구 공군본부에 내려가 계셨고 형수 이 여사만 집에 계셨다고 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영환 대령은 흰색 마후라를 하고 다녔다고 하였다. 6·25전쟁 발발 이후 공군의 단독작전이 시작된 1951년 10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북한상공을 출격하더니, 기쁨과 땀에 베인 마후라를 새것으로 마련하려고 마후라 값을 찾아도 흰 천이 없으므로, 장롱 속에 있던 비단천만이 있기에 할 수 없이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감릉기지에 돌아왔다. 당시 모든 조종사들이 보기에 너무 좋았으므로 우리도 전대장님과 같이 빨간 마후라도 통일하자고 권의원이 되어, 감릉시장 포목점에 빨간 천을 구입하여, 모두가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빨간 마후라가 공군조종사의 생명처럼 상징이 되어 버렸다.

<다음호에 계속>

銀河水에 一葉片舟를 띄우고

윤 석 문(공사 8기)

나는 야간비행시간이 동기생들 가운데 많은 축에 속한다. 장거리 장시간을 날으는 여객기나 큰 수송기가 아닌 소형 훈련기나 전투기만으로 총 비행시간 5,000여 시간 중 400여 시간이 야간비행시간이니 말이다.

대구에서 고등비행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F-86F로 전환교육을 마친 나는 김포에 있었던 00전투비행단 000전투비행대에 첫 배속을 받았다. 그곳에서 겨우 작전가 능훈련을 마친 후 곧 전전후 요격기였던 F-86D로 전환교육을 받기 위해서 수원으로 부임했다.

주임무가 주야간 전전후 요격 훈련이어서, 격주로 야간비행을 하였으며, 야간비행이 없는 주간에는 야에 출근을 오후에 하고, 자정이 될쯤 넘어서야 퇴근하는 생활이 연중 계속됐다.

북과 간첩의 야간 해상침투가 심할 때, AT-33으로 대간첩 야간전술의 개발시부터 참여했으며, 중등비행 교육과정과 전역 후에도 제주에 있는 대한항공 기초비행훈련원에서 조종학생들의 야간비행시간 요구량을 충족시키다 보니 자연히 야간비행시간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야간비행 중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애기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

중등비행 교육과정 비행교관 시절에 있었던 애기거리다.

1967년 8월 7일자로 나는 당시 공군비행학교 00비행교육대대의 교관요원으로 전속, 보임되었다가 그해 10월 30일자로 작전교육과 선임장교인 계획장교 겸 작전장교로 전보됐다. 다음해 나는 미공군 대학 초급참모-지휘관과정의 교육요원으로 동기생 3명과 함께 선발되어 도미준비 중에 있었고, 모시고 있던 작전교육과장까지 2개월여 과정으로 미국에 출타 중이어서 과정까지 대행까지 해야 하는 나는 눈코 뜰새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때다. 그런 처지를 감안한 P교장님(공사 1기)께서는 T-28 한 대를 서울 공군본부까지의 출장에 매번 전용하도록 고압계도 배려해 주셨다.

출발교육까지를 겸한 마지막 수속절차를 위해서는 일행이 공군본부에 다 모이게 됐고 귀대 길에는 김포에 근무하던 동기생 K의 집에서 K의 처가 점성스레 준비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야간비행으로 귀대해야 했다. 일행 중 하나인 동기생 K가 대구에 근무 중이어서 대구에 내려주고 김해까지 가도록 비행계획이 이뤄졌다.

김포기지를 이륙한 것은 밤 8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평택상공을 지날 때는 함로에 들어섰고 주어진 비행고도에 이르러 있었다. 구름 한점없는 초가을밤 하늘, 밤하늘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중천에 달이 떠 있었고 별들은 초롱초롱 빛났으며, 항로 주변 중소도시들의 등불들도 뒤질새라 밤하늘의 별빛만큼이나 초롱초롱하였다. 후방석의 K(수송기 조종사)가 무료한지 자기가 조종할 테니 좀 쉬라 하여 나는 조종간을 뒤에 맡기고는 야경에 심취된 채로 이런저런 애기꽃(야간비행 때문에 날길 수

밖에 없었던 반주며 안주들에 대한 아쉬움까지...)을 피우며 대전상공에 이르렀을 때다.

광광 과감--- 천동소리와 함께 기체 앞부분에 심한 진동과 함께 배기관에서는 불뿜(마치 숯불에 소금을 뿌렸을 때 튀기는 불뿜과 같은)이 요란스레 튀기며 계기판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조종간을 움켜잡고 나의 판단을 확인하고자 후방석 K에게 물었다. 여기서 대구가 가까운가 아니면 오산이 가까운가? 하니, 그는 대구는 더 멀고 추풍령과 같은 산악을 넘어야 하니, 정풍을 받기는 하지만 오산으로 가세한다. 자네 생각도 역시 그렇구만 하면서 나는 기수를 오던 길로 되돌리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나의 인선이 경고등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

나는 고소를 머금은 채 비상절차상의 모든 조치를 내렸다. 출력을 수평비행이 겨우 가능하도록 줄이고, 기타 등등?... 나는 비상사태의 유형을 직감할 수가 있었다. 근간서너 차례의 같은 유사사고가 비행 중 발생했다. 당시 T-28 훈련기는 곧 퇴역시켜야 할 정도로 노후돼 있었다. 그래서 프로펠러축을 구동시키는 크랭크샤프트와 그 부품들이 균열이 가고, 또 절단되는 사고들이 발생했다.

나는 비상사태 선포를 포함한 지상과의 일체 교신은 후방석의 K에게 일임하고, 비행에만 전념하면서 오산 비행장으로 향했다. 엔진 오일의 잔량을 알리는 계기의 지시는 3분지 2 가량이 벌써 줄었으며 계속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하였고, 비상절차를 이행 후는 항공기의 떨림과 소음은 다소 줄어든 것 같았다. 배기가스에 섞여 누설되는 오일이 프로펠러 후류에 날리는 모양은 마치 여름철 방역차가 동리 골목에서 뿜어대는 분무연기와 똑같았다.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길게 뿜어내는 분무연기는 어느 사이엔가 은하수로 변하고 나는 은하수에 일엽편주를 띄우고 흘러 흘러 가면서 밤하늘의 풍류를 즐기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심하던 항공기의 진동도 멎고 요란하던 항공기의 소음도 들리지 않는다. 멀리에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배 밑엔 중소도시의 산골짜기마타의 등불, 등불?... 공적(空寂)이나 감싼 체 긴 시간이 흐른다. 선각(先覺)하게서 말씀하신 성성적적(惺惺寂寂), 적적성성(寂寂惺惺)한 경계란 과연 어떤 것일까? 주간비행만 같았으면 대전이나, 평택비행장이나, 아니면

개울가 모래밭이나 개활지에라도 비상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오직 야간이라서 오산으로, 오산으로 향할 수 밖에 없었다. 후방석의 K는 내가 당황하지 않도록 애를 많이 쓴다. 비상호출을 접한 오산비행장, 활주로 끝에는 벌써부터 앰블런스며 소방구조차량들의 불빛이 요란스러웠다. 착륙이 충분하다고 판단된 고도, 거리에서 나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무사히 활주로상에 항공기를 착륙시켰다. 좌석에서 나와 헬멧이며 집들을 챙겨 들고 나가 내뿜어졌다. 불빛에 보이는 나와 K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앞자락이 마치 불에 까맣게 탄 메뚜기들 같지 않은가. 그제야 비행기를 바라보니 비행 중 모두 누설되며 날린 오일을 뒤집어써서 항공기의 동체가 모두가 까맣게 페인트칠이 돼 있었다.

길게만 느껴졌던 날아온 남쪽 하늘을 뒤돌아 왔다. 밤하늘엔 별들만 초롱초롱 빛나고 있다. 길게

늘어트렸던 하얀 분무연기는 흔적도 없다. 평들과 함께 항공기가 크게 진동하면서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 무의식중에 기를때가 묻은 조종장갑을 낀 손손이 경고등을 가렸던 내 모습이 초라하고 우습기만 했다. 그래서 불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했나보다. 어이없었다는 듯 빙그레 웃으며 K의 손을 잡았다. K의 손이 따뜻했다.

이후에는 아무리 다급하고 또 어려운 상황(실력 죽음까지도)이 닥치더라도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지 경고등을 가린다는지 하는 짓거리는 하지 않으리라. 지금도 이따금 눈을 감으면 별들이 초롱초롱한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은하수에 일엽편주를 띄우고 유유자적(悠悠自適)하는 정경(情景)이 떠오른다.

유유(悠悠)하리라. 크게 유유(大悠悠)하리라고 마음 다잡아 본다.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평생회비

· 9차년도 납부(45명) 450만원

○ 찬 조

· 공군참모총장(대장 이억수) 200만원
· 백운호(공사 24기) 10만원
· 9기사관 3,470만원

회 장	강민수	500만원	한광희	200만원
부 회 장	김상태	500만원	이기봉	50만원
감 사	정원호	100만원		
사무총장	이재률	100만원	고인규	100만원
이 사	김광순	500만원	김명수	100만원
	권혁달	100만원	백봉중	100만원
	박종권	100만원	신도범	100만원
	서철수	100만원	이영림	100만원
	이강홍	100만원	이명선	100만원
	이준호	100만원		
	최일영	100만원		
회 원	고은택	50만원	민대식	50만원
	윤성진	50만원	이경환	20만원
	이홍세	50만원	이현호	30만원
	조희열	20만원	채기권	30만원
	황중우	20만원		

○ 3사체전 격려금

총동창회를 통하여 3사체전 격려금을 보내주신 기생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전역 모교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기	: 50만원	2기	: 100만원	3기	: 100만원
5기	: 50만원	6기	: 100만원	8기	: 100만원
9기	: 100만원	10기	: 100만원	11기	: 100만원
12기	: 100만원	14기	: 100만원	15기	: 100만원
18기	: 100만원				

회비납입안내

회원회비 : 기본회비/평생회비
· 10만원(1회 납입으로 종료)

기별분담금(임원회비)
- 회기(대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 1기~ 8기 : 기별 40만원
· 9기~29기 : 기별 60만원

찬조금/광고협조
· 회원이면 누구나

안 내

· 한빛은행 : 319-106231-02-301
(예금주 : 이재률, 공사총동창회)

송금시 유의사항

· 입금시 기수, 성명, 납입구분(평생회비/기별/임원회비, 기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Tel : 02-823-1091,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58-1
HomePage : www.kataprige.org, E-Mail : airfa04@hanmir.com)

平生會費 納付者 名單 (01. 9. 20. 現在)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	납 부 자 명 단
1	36	36	100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80	80	100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83	52	63	고승만, 고재원, 공사연, 김경복, 김규홍, 김동호, 김병기, 김삼용, 김성하, 김인기, 김진섭, 김진환, 박석원, 박영호, 박영주, 백낙승, 백정석, 손철영, 심장섭, 소명욱, 손호인, 양현재, 엄영식, 윤경환, 윤배욱, 윤봉섭, 이경영, 이만섭, 이병완, 이상운, 이상복, 이원재, 이인행, 이중락, 이필원, 이학수, 이영복, 장동준, 전복규, 전승우, 정규혁, 정진섭, 정종식, 조박현, 조승호, 지경근, 최동호, 최할기 * 이현동, 정합채, 홍천희
4	66	41	61	구자춘, 김석용, 김용주, 김환중, 박승준, 박예재, 박오화, 박용진, 박제진, 박차식, 서동렬, 신동만, 안우일, 양승문, 오수근, 유동천, 이래석, 이순요, 이시우, 이조한, 장남준, 장우익, 정구현, 정낙영, 정봉규, 정봉원, 정영봉, 정진모, 조경래, 조봉구, 조옥찬, 최세천, 최준식, 한영규, 홍사학, 홍의태, 홍재학, 황규복 * 박전하, 임병열, 정현국
5	102	60	59	강희신, 고경달, 권오인, 김종인, 김삼곤, 김선근, 김성일, 김옥범, 김운배, 김희년, 김홍규, 나병순, 문장수, 박병구, 박석환, 박석환, 박용태, 박종희, 박종식, 박항배, 배경태, 배수현, 성보경, 손경희, 손민희, 신봉림, 손정희, 송웅근, 안석기, 양영직, 여태연, 유철중, 윤준현, 이동식, 이병직, 이수전, 이운모, 이원순, 이원천, 이준수, 이훈일, 임종배, 임학용, 장기현, 장재명, 전운수, 정병주, 정봉수, 정순갑, 정재식, 차순도, 최찬정, 최홍선, 한정근, 한필순, 허광선, 황교찬 * 김상락
6	46	48	104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58	62	107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53	53	100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44	46	105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	49	44	90	강위훈, 권영락, 김광영, 김병태, 김상해, 김순호, 김시호, 김환수, 김운재, 김운주, 김중선, 김재달, 김태석, 김한용, 김용래, 문성근, 박근열, 박복찬, 백대선, 백승용, 서진규, 선희제, 서수환, 송종호, 송환수, 이강주, 이달화, 이두훈, 이병태, 이봉중, 이수갑, 이수길, 이영우, 이은봉, 이창호, 이재병, 이현재, 임승욱, 장종길, 최원철, 한정복, 홍동식, 홍성무, 황봉석
11	48	52	108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	42	34	83	강영식, 김규림, 김문수, 김영식, 김영용, 김원인, 김태규, 나광수, 남동현, 민항식, 박덕희, 박상철, 박원규, 박창길, 박준택, 배기춘, 배양일, 백광현, 신동운, 삼재운, 안봉열, 우대석, 우정수, 이명환, 이상경, 이상순, 이종득, 이종양, 이종우, 전대우, 정민남, 정관중, 최대식, 홍종건
13	50	38	76	권희분, 강신해, 고명준, 곽갑순, 김갑수, 김영부, 김종식, 김진삼, 김진석, 김준연, 문기철, 민항식, 손덕규, 안병하, 안병철, 유근우, 유병각, 윤재명, 이기현, 이병길, 이승대, 이정호, 이종대, 이종화, 이태규, 이희관, 장덕수, 정해성, 지창수, 조건환, 최길중, 최영덕, 최인일, 최종덕, 태종민 * 이장평, 이승배, 이완구
14	53	50	100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	50	28	56	권기동, 김대용, 김덕훈, 김석호, 김성덕, 김주식, 김평람, 명정수, 박득규, 박영남, 박오상, 박종걸, 배양용, 손영철, 신길수, 안위공, 안승록, 엄익준, 오상현, 이강섭, 이길환, 이호재, 임용환, 조국연, 최광섭, 최성열, 최용환 * 최광순
16	52	28	54	강철수, 김문기, 김신홍, 김의림, 김정갑, 김종환, 김현석, 박성국, 박경용, 박영훈, 배정영, 백동기, 서효창, 오창모, 이선기, 이성우, 이수용, 이재기, 장진수, 임정빈, 전광남, 정해창, 주창성, 최동철, 최명상, 최양수 * 이상렬
17	60	34	56	강희간, 고영섭, 고종무, 김상재, 김석우, 김문태, 김용수, 김익창, 김재수, 김중현, 김준수, 박용택, 배중수, 서정운, 안광수, 어수연, 유성열, 유정용, 윤병인, 이규대, 이근호, 이상훈, 이한호, 이철희, 전연배, 장상용, 장호근, 조규식, 차욱환, 함형택, 황장반 * 김문수, 김용수, 이윤대
18	64	40	62	곽조희, 강재철, 고정훈, 구세환, 구정희, 곽은용, 김두연, 김성진, 김종식, 김재수, 김재운, 김진철, 김태곤, 김현규, 류효열, 신명호, 석현수, 손인익, 송희진, 신표근, 엄이용, 오병환, 오환근, 윤관중, 이기택, 이봉길, 이선희, 이영준, 이정욱, 이진익, 이태섭, 이하진, 장영수, 전영훈, 정원태, 최석상, 최태호, 천기광, 허 안 * 최석상
19	73	26	36	김덕실, 김명림, 김영철, 김정진, 박 일, 서경수, 손영수, 손정환, 유병권, 윤정채, 이균신, 이강욱, 이계오, 이규찬, 이달오, 이성윤, 이영순, 이인행, 정성진, 조명래, 지광식, 하석태 * 유승철, 장희천, 정희섭
20	94	14	15	김오비, 김우식, 김정기, 손준영, 이정락, 이영원, 장성문, 조태연, 차종권, 환광성, 환길성, 허원욱 * 이영희, 최삼용
21	97	17	18	강남식, 금기연, 금영수, 김상인, 김영배, 김영락, 김태우, 명철원, 박경석, 성봉환, 송동근, 윤성기, 이수남, 정용운, 조오연, 홍종백 * 배창식
22	103	14	14	김수준, 김은기, 남배우, 손종열, 윤여동, 이광희, 이경환, 이영하, 이용익, 이정석, 장영섭, 홍재근, 최병운, 최승연
23	109	8	8	김수환, 이은수, 윤차영, 박종철, 장석원, 정경모 * 구분담, 정규덕
24	130	15	12	공운석, 신진섭, 송기백, 안철수, 안빈용, 염경식, 이원중, 이영중, 이재강, 전남채, 정원호, 주신호, 최충윤 * 백은호, 정성화
25	124	14	11	구도권, 김진태, 김종훈, 김정렬, 류봉규, 박우성, 박준환, 손명환, 임우규, 윤양로, 윤용영, 이성재, 최승규 * 김국휘
26	123	4	4	박인규, 변종돈, 최병학 * 최지수
27	125	8	8	고덕규, 김만오, 김용상, 남은우, 박창권, 손태용, 최동환, 홍성운
28	122	2	2	신영덕, 최상일
29	141	28	20	김경호, 김석중, 김성전, 김영권, 김영철, 김원규, 김철생, 나중렬, 박성기, 백승욱, 송창석, 심동환, 심재광, 오승균, 오영봉, 오환두, 윤주혁, 이규복, 이병두, 이완식, 이일수, 이장근, 정남범, 최상철, 최승철, 홍상기, 홍승조, 류재욱
30	151	6	6	강성호, 김원규, 김용환, 김진환, 장덕진, 채종복
31	166	1	1	조환기
32	168	0	0	
33	173	3	3	유종중, 이재중, 정희주
34	167	2	2	안상철, 정찬영
35	252	1	1	* 서완석
36	256	2	2	김용문, 박홍식
37	252	0	0	
38	232	0	0	
39	222	1	1	* 최성모
40	243	0	0	
41	242	1	1	김민호
42	277	0	0	
43	271	0	0	
44	211	4	4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이강희
45	211	0	0	
46	230	0	0	
47	201	0	0	
48	193	103	53	김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분곤, 구필연, 금규태, 갈태환, 김강주, 김경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봉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승연, 김시문,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환, 김태호, 김홍식, 나정훈, 남택수, 문보연, 민병역,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영, 박관민, 박희수, 사제철, 소명섭, 손성진, 송인관, 송민원,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훈, 양갑주, 엄일용, 오상민, 원용창, 유 흥,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태연, 이홍수, 이봉준, 이만섭, 이무강, 이상훈, 이석원, 이순재, 이우연, 이원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재연, 이종원, 이종훈, 이찬용, 이태승, 이년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광순, 장관홍, 장성진, 정대만, 정기만, 정인식, 정재훈, 정철훈, 조여준, 채 석, 최영호, 최연석, 최규원, 최성호, 최성호,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중, 허석희, 홍문기
49	199	0	0	
합	6,597	1,101	17	미상 * '01년 2월 20일에 지료용지 납입하신 분 중 심병과 기타 사항을 기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뒤의 표시는 9차년도('01. 7. 1~9. 20.) 납부자



ISO 9001 인증획득

신념을 지켜가는 기업

진정 용기 있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최첨단의 설비와 기술, 최고의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금속 가공 OIL 및 CHEMICAL 분야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한국 하우톤. 최요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념을 가진 기업, 외길을 지켜가는 고집 있는 기업, 한국 하우톤이 만들어 갑니다.



주요생산제품

- 절삭유, 방청제, 압연유
- 소성가공유, 신선유, 합성 윤활유
- 열처리유, 산업용 윤활유, 제척제
 - 특수 및 산업용 그리스
- 표면 처리제 및 금속코팅/도금
- 특수 수지 및 전기 절연 바니쉬
 - 기타 관련 케미컬
- Metal Cutting Fluids, Rust Preventives, Steel and Aluminium Rolling Oils
- Metal Forming Fluids, Drawing Oils, Synthetic Lubricants
- Heat Treatment Oils, Industrial Lubricant Fluids, Cleaners
 - Grease Products
 - Metal Surface Treatments
- Waterborne Coats/Paints, Specialty Resins
 - Electrical Insulating Varnish
 - Other Related Chemicals



株式 韓國 하우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화관 19층 • TEL. 02-3284-3300 • FAX. 02-3284-3333~5
아산공장 : TEL. 041-541-8384~6 FAX. 041-541-8387 / 온산공장 : TEL. 052-238-7431~4 FAX. 052-238-7783
e-mail : houghton@houghton.co.kr / web-site: http://www.houghton.co.kr